

함께해요 가축분뇨 자원화

# 퇴비부숙도

- 돼지편 -



# Chapter 1. 돼지 분뇨의 특징

## CHATER 1. 돼지 분뇨의 특징



돼지는 다른 축종보다 분뇨의 함수율이 높아  
고액분리 후 수분조절재를 사용하여 조절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Chapter 2.

## 효율적인 축사관리방안

❗ 돼지 축사 형태는 슬러리피트, 깔짚 돈사 등이 있으나 분뇨 수거가 용이한 **슬러리피트**가 다수입니다.

❗ 슬러리피트에 분뇨가 장기간 저장되면 부숙에 유용한 미생물이 사멸하여 퇴비화가 느려집니다

\* 분뇨저장조는 주 1~2회 비우는 것을 권장합니다.



# Chapter 2.

## 효율적인 축사관리방안

❗ 깔짚돈사의 경우 출하시 깔짚 상태를 파악하여 자신의 농장에 적합한 양의 깔짚 두께로 관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돈사 깔짚 두께는 20~30cm가 적절합니다.

❗ 부숙된 퇴비를 생분에 섞으면, 부숙퇴비의 유용미생물이 보다 빨리 번식하여 부숙을 촉진시킵니다.

\* 미생물은 주 1회 살포하고, 부숙 퇴비는 30% 정도 넣는 것을 권장합니다.



# Chapter 2.

## 효율적인 퇴비사 관리 방안

! 수분조절재는 종류마다 특성이 달라 상황에 맞춰 사용해야 합니다.

구분	장점	단점	기타
짚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기성 개량효과가 큼</li> <li>●분해가 용이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기 제한</li> <li>●절단작업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료 이용량 많음</li> <li>●수확작업 시 절단 살포</li> </ul>
왕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기성 개량효과가 큼</li> <li>●분쇄 왕겨는 흡습성 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해가 어려움</li> <li>●가공에 인력·경비 소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공비용이 톱밥보다 저렴</li> </ul>
톱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기성 개량효과가 큼</li> <li>●흡습성이 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속적 공급량 확보 곤란</li> <li>●분해가 더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공비용 비쌌던</li> </ul>

! 퇴비 더미 표면에 흰색띠(방선균)가 생겨도, 더미 내부는 부숙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교반·관리해야 합니다.

\* 퇴비더미는 주 1회 이상 교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Chapter 3.

## 이것이 궁금해요! Q&A

Q. 퇴비사에 보관 중인 퇴비와 살포된 퇴비  
모두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하나요?



# Chapter 3.

## 이것이 궁금해요! Q&A

A. 농경지에 살포한 퇴비만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면 됩니다.

퇴비사에 보관 중인 퇴비는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부숙도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야하며 주기적 검사 결과는 부숙도 기준에 일치하지 않아도 되나, 농경지 살포 시에는 **부숙도 기준이 적합**해야합니다.



# 퇴비부숙도 기준 적용대상 돼지농가 여러분!

1

모든 가축의  
퇴비부숙도 적용기준

배출시설 면적

후기, 완료

1500㎡ 이상

중기

1500㎡ 미만

2

성분검사 주기

검사 주기

허가대상 농가  
(50~1,000㎡ 미만)

6개월에 1회

신고대상 농가  
(1,000㎡ 이상)

1년에 1회

2021년 3월 25일부터 제도기간 종료!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배출하는 농가는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품질 퇴비화로 축산 악취를 줄이고,  
깨끗한 축산농장 만들기  
함께 노력해주세요!

To be continue. 뒷편

다음  
편에서  
만나요~

축산환경관리원/lemi.or.kr